

무사 영웅의 영광과 오욕

— 뒤메질의 헤라클레스 신화분석을 중심으로 —

김 현 자*

- I. 들어가는 말
- II. 헤라클레스의 근원과 기능적 가치
- III. 헤라클레스의 과오들
- IV. 불의 세 가지 현현 양태와 헤라클레스의 죽음
- 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디지털 문명의 발달에 힘입어 고대인들이 전해준 영웅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전 세계 대중문화의 소재가 되어 현대인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고 있다. 단지 낯선 것들이 유발하는 흥미로움으로 인해 고대 신화들이 현대에 되살아나는 것일까? 현대인들이 고대 문화에 대해 유별난 호기심과 관심을 가져서일까? 아니면 고대 신화들이 과거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일까? 이 글에서는 조르주 뒤메질(Georges Dumézil, 1898-1986, 프랑스)의 헤라클레스의 신화 해석을 통해 영광과 오욕으로 점철된 고대 그리스의 무사 영웅의 삶을 고찰함으로써 고대 신화의 현대적 의미를 성찰하겠다.

뒤메질은 인도-유럽계족의 신화 연구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20세기의 위대한 신화학자로 인정받는다. 그의 신화 분석틀은 법률적·종교적 지배권 (magical and juridical sovereignty)/물리적인 힘, 특히 무사의 힘 또는 방어 (physical strength or defence)/ 편안하고 비옥한 풍요 또는 부(quiet and fecund abundance or wealth)라는 3기능 이데올로기(trifunctional ideology)이

* 서울대 강사, 종교학

다. 이 세 요소는 인간 집단이 존속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기본 기능들이며, 이들 간의 유기적 조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질서 있고 평온한 삶을 누리도록 보장해준다. 뒤메질의 용어로 표현하면 도시를 세웠던 건국 영웅과 왕들 및 종교적 영웅이 제1기능을 수행하는 영웅이라면, 왕이 아닌 무사는 제2기능을 담당했던 영웅이다. 고대 신화들에서 지모신의 생산성을 표상하는 여신이나 여성은 기능적 관계에서 제3기능의 구현자로 볼 수 있다.

왕의 무사로 살다 죽어서 신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헤라클레스(Heracles)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 못지않게 ‘강한 육체적 힘을 가진 영웅’이다. 제2기능의 영웅은 한편으로는 제1기능이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 풍요, 미, 건강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자산에 해당하는 제3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하지만 강력한 물리적 힘을 가진 제2기능의 인물은 그가 지닌 강한 힘으로 인해 제1기능과 제3기능의 영역을 침해할 쉬운 유혹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여 탁월한 무사 영웅의 삶에는 늘 영광의 배후에 오욕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Mythe et Epopée II* (신화와 서사시 II), p.p.117-122 ; *Heure et Malheur du Guerrier* (무사의 길흉화복), p.p.97-105 ; *L'oublié de l'homme et l'honneur des dieux* (인간의 망각과 신들의 명예), p.p.71-79에서 뒤메질이 분석한 내용들이 바로 이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통해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제2기능의 존재이유를 상기시키는 진정한 무사의 명예와 덕목들을 각인시키면서 오용된 힘에 대한 적절한 응징의 장치들을 마련했던 책임 사회였다. 뒤메질의 헤라클레스 신화 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II. 헤라클레스의 근원과 기능적 가치

지역을 막론하고 고대의 탁월한 영웅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헤라클레스도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 반신적 존재다. 시칠리아 출신 디오도로스(Diodore de Sicile)¹⁾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헤라클레스는 타고난 영웅으로, 강한 그의 육

1) 디오도로스(Diodore de Sicile)는 기원전 1세기에 지중해 최대의 섬 시칠리아에서 태어났다.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이 섬은 그리스, 이집트, 그리고 로마의 각축장이었다. 기원전 8세기에 시칠리아의 동부 지역은 그리스 식민 도시인 시라쿠사의 지배하에 있었고, 서부 지역은 카르타고가 통치했다. 로마제국 초기에 지중해의 지배권은 로마가 장악했으므로, 디오도로

체적 힘은 올림포스의 최고신에게서 나왔다.

1. 알크메네와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La Bibliothèque historique, IV, 9, 2-3)

“2. 그의 재능은 그 행위에서만 발휘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타났었다. 실제로 제우스는 알크메네와 결합하였을 때, 밤의 길이를 세배로 늘였으며, 또 그 출생을 위해 썼던 시간의 양은 장차 태어날 아기의 과도한 힘을 예고하였다.

3. 제우스는 색욕으로 3일 밤 동안 알크메네와 결합한 것이 아니라 출산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알크메네의 정절을 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암피트리온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그녀에게 갔었다.”

제우스는 알크메네와 달이 세 번 뜨고 질 때까지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의 원래 이름은 트리셀레노스(Triselenos)이다. 인간보다 큰 그의 키에 대한 공론들이 없지는 않았으나, 헤라클레스는 괴물도 아니고 거인도 아니다.²⁾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과도한 힘을 자신 속에 지니고 있었는데, 이 과도함은 제우스의 힘이 삼중으로 약화된 형태로 나타난 결과이다. 헤라클레스의 탄생을 위해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3일 밤 동안 힘을 썼다. 이 한 번의 생산을 위해 그가 소비한 정액의 양은 신에게조차 엄청난 양인 것 같다.³⁾

에로틱한 모험을 즐기는 바람둥이 신의 모습은 전지전능하고 정의로운 신이라는 관념이 지배하는 신학체계에서는 용납되기 어렵다. 다윈의 진화론이 기독교의 창조신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맹렬한 비난을 받던 시대를 살았던 막스 뮐러(Friedrich Max Müller, 1823년 12월 6일 - 1900년 10월 28일)는 그래서 신화

스가 태어나던 시기에 이 섬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는 시칠리아를 벗어나 이집트와 유대, 아시아를 여행한 후 로마에 정착하여 40권으로 된 *La Bibliothèque historique*(역사총서)를 편찬했다. 이 중 제1권-제6권은 트로이아 전쟁 이전의 신화적 시대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제3권까지는 이집트, 아시아, 아프리카인들에 관해 기술하며 제4권-제6권은 그리스 상고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2) 헤라클레스는 키가 4척이나 되고 두 눈에서는 불이 번쩍였으며, 활을 쏘든 창을 던지든 빛나가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아폴로도로스, 『원전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헤라클레스와 그의 자손들, 129쪽)
- 3) 이 부분은 *Mythe et Epopée II*, p.p.118-119의 내용 중 2. Héra, Athènes, Héraclès라는 제목 하에 I.Naissance d'Héraclès(헤라클레스의 탄생) 부분이다. 뒤메질은 디오도로스에서 인용한 내용은 그대로 번역했기에 인용 부호를 사용했으나, 이 내용에 이어지는 뒤메질의 설명은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쓰고 설명을 추가한 부분이 있어 인용 부호를 생략했다.

와 종교를 구별했다. 그는 건전한 도덕의 규칙들과 신학의 가르침에 합치하는 믿음들은 종교로, 신화는 종교들에 이식되어 종교를 왜곡시키는 기생물들로 간주했다. 이런 구분에 따르면, 올림포스의 최고 신, 인류의 아버지, 법의 수호자, 죄의 응징자로서의 제우스를 이야기하는 신화는 종교에 속한다. 반면 온갖 모습으로 변신하여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고, 거짓과 모험을 일삼으며 수많은 여신들을 유혹하여 자식을 낳는 제우스의 이야기는 종교에 빌붙어 그 숙주를 망가뜨리는 유해한 기생물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은 이미 술한 비판을 받아 폐기된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신화 이해에서 잘못된 문제의식을 갖지 않도록 뒤르케임의 비판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자. “종교적 믿음들 중 올바르고 건전해 보이는 것들만을 취하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기분을 망치는 것들은 종교라 부를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내몰지 않도록 조심하자. 신화는 아무리 비합리적인 듯이 보여도 모두 신앙의 대상이다.”⁴⁾ 그렇다. 그리스 신화에는 마치 지층처럼 고대 그리스인들의 믿음과 삶의 흔적, 그들 역사의 어떤 흔적들이 담겨있다.

알크메네 외에도 제우스는 변신술을 사용하여 수많은 여인과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고, 여러 여신들과 결합하여 신들을 낳는다.⁵⁾ 도시 국가 뮈케나이의 창건자로 알려진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와 다나에의 자식이다. 제우스는 황금 소나기로 변신하여 탑(혹은 지하 동굴)에 갇힌 다나에의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또 황소로 변신하여 카드모스의 여동생 에우로페를 납치해 크레타 섬으로 데려갔다. 얼마 후 에우로페는 제우스의 세 아들 미노스와 라다만티스, 그리고 사르페돈을 낳고, 이 중 미노스가 크레타 섬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였던 크노소스의 왕이 된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에서 도시의 창건자나 왕들 중에는 제우스의 자식으로 태어난 인물들이 적지 않다.

남편 암퀴트리온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정숙한 알크메네에게 접근한 제우스, 헤라가 이를 그냥 두고 볼 리가 없다. 어김없이 그의 탄생 신화에는 ‘바람둥이 제우

4) Émile Durkheim, *Les formes élémentaires de la vie religieuse. Les système totémiques en Australie*(1991), 165.

5) 제우스의 첫 번째 아내는 메티스(Metis, 지략)이다. 다음으로 제우스는 테미스(Themis, 질서의 여신), 에우뤼노메(Eurynome, 넓은 목초지(eurys "broad" + 목초지 nomos, "pasture" or 법 "law"), 므네모쉬네(Mnemosyne, 아홉 뮤즈를 낳은 기억의 여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라와 결혼한다. 또 데메테르(Demeter)와 결합하여 페르세포네(Persephone)를, 레토(Leto)와 교합하여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는다. 많은 토착 여신들과 특정 능력을 가진 여신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제우스의 신화들은 펠라스고이족이 살았던 땅을 그리스인들이 지배하여 자신들의 신앙체계를 확립하는 정치적, 종교적 과정을 반영한다는 것이 그리스 신화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스와 질투하는 헤라'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제우스의 바람기와 헤라의 질투를 문자 그대로 남편의 주체할 수 없는 바람기를 질투하는 아내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神)-인(人) 관계에 대한 믿음과 올림포스 신들이 구현했던 기능적 관계를 간과하게 된다.

수많은 여인들과 결합하여 자식을 낳은 '바람둥이 제우스'의 이야기는 인간의 능력과 운명 및 통치권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신들이라는 믿음을 반영하는 신화적 표상들이다. 이 믿음이 도시의 특징, 왕권의 상징, 영웅의 유형 등과 결합되어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 예컨대 페르세우스와 미노스의 탄생신화에서 제우스의 변신, 즉 황금 비-제우스, 황소-제우스는 각각 황금이 많은 뮈케나이와 크노소스의 왕권을 표현하고 있다. 도시, 왕권, 개인적 능력은 신이 주신 은총이라는 믿음이 최고신을 바람둥이로 만들었다면, '질투하는 헤라'의 에피소드들은 저마다 다른 차원에서 조명될 수 있다. 뒤메질은 무사 영웅 헤라클레스의 탄생신화에 나타나는 헤라의 질투를 왕과 무사의 관계, 즉 각자가 대변하는 기능적 관계의 틀에서 설명한다.

2. 헤라, 아테나, 그리고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는 탄생 이전에는 제1기능에 대립하는 제2기능의 영웅으로 분류된다. 알크메네가 헤라클레스를 해산하기 직전에 제우스는 곧 태어날 아기가 아르고스의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질투에 사로잡힌 헤라가 그 말을 듣고 분만의 여신 에일레이티아에게 명하여 알크메네의 분만을 연기시키고 에우뤼스테우스를 먼저 태어나게 하였다. 제우스는 신들 앞에서 한 자신의 선언을 깨뜨릴 수 없었다. 자신의 아들에게 가야할 왕위가 에우뤼스테우스에게 넘어간 것에 대한 대가는 왕권 이상의 것이어야 했다. 헤시오도스 시대에 이미 아시아와 이집트에서 신으로 격상되어 숭배를 받던 헤라클레스가 아닌가! 디오도로스는 그에게 인간의 조건을 벗어나는 신적 특권을 부여했다. 제우스는 에우뤼스테우스가 부과한 12가지 난사(難事)를 수행하고 나면 헤라클레스는 불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4. 자연이 임신한 여인들에게 정해진 기일이 되었을 때, 제우스는 헤라클레스의 탄생을 염두에 두고 그 날 태어날 아기가 페르세우스의 왕이 될 것이라고 여러 신들 앞에서 선언하였다. 그러나 질투에 사로잡힌 헤라는 에일레이티아의 도움을 받아 알크메네의 해산의 고통을 연장시켜 에우뤼스테우스를 먼저 태어나게 한다.

5. 이렇게 해서 제우스의 계획은 어긋나 버렸다. 그리하여 제우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면서 동시에 헤라클레스의 영광을 사전에 보장하고 싶었다. 그가 헤라를 설득하여 제우스 자신의 약속대로 에우뤼스테우스가 왕이 되나, 헤라클레스가 에우뤼스테우스의 명에 따라 12가지 난사(難事)를 완수하면 불멸을 획득하는 데에 타협하게 한 것은 그때문이라고 한다.

6. 알크메네가 분만하였을 때 그녀는 헤라의 질투가 두려워 갓난아기를 들판에 버렸는데, 오늘 날 사람들은 그 들판을 “헤라클레스의 들판”이라 부른다.

7. 이 때 아테나가 헤라와 함께 그곳을 지나다가 아기의 외모에 감탄하여 헤라를 설득하여 아기에게 젖을 먹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기가 너무나 힘차게 젖을 빨아 헤라는 고통을 느껴 그 아기를 밀어내었다. 그러자 아테나가 그를 데려다가 그 어머니(알크메네)에게 아이를 키우라고 하면서 돌려주었다.

8. 자기 자식을 사랑해야 할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고, 그 아이가 본래 자신의 적이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를 구해준다는 예기치 않았던 상황의 전도는 주목할 만하다.(Diodore, IV, 9, 4-8)

헤라클레스의 탄생 이후에 전개되는 장면, 즉 헤라가 그에게 드러내는 적개심과 아테나의 헤라클레스 보호를 통해 우리는 그가 제1기능에 대립하는 제2기능의 영웅으로 태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헤라클레스의 유년기동안 헤라가 드러내는 증오와 아테나가 헤라클레스에게 기울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성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디오도로스의 텍스트로 한정한다면, 요람 속의 아기를 질식시키기 위해 두 마리의 뱀을 보낸 이는 헤라이다.⁶⁾ 이것으로 인해 아기는 그 영웅적 이름 헤라클레스-“헤라로 인해 영광을 얻은 자”-를 얻게 되었다. 또 헤라는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진 헤라클레스가 에우뤼스테우스를 섬기기를 주저하자 그를 광기에 사로잡히게 하였다.

그러나 아테나는 여러 신들이 헤라클레스를 무장시킬 때, 제일 먼저 그에게 여자용 민소매 윗도리를 선물하였다. 위(僞) 아폴로도로스(Pseudo-Apollodore) 신화집⁷⁾에 의하면, 에우뤼스테우스가 헤라클레스에게 부과한 11번째 난사는 헤스페

6) 헤라클레스가 태어난 지 여덟 달이 되었을 때, 헤라는 아기를 죽이려고 거대한 뱀 두 마리를 아기 침대에 가져다 놓았다. 놀란 알크메네가 남편 암피트리온을 향해 도와달라고 소리 치자, 자고 있던 아기가 일어나 그 뱀들을 손으로 잡아 죽였다.

7) 이 신화집의 국역본으로 『원전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천병희 옮김)과 『아폴로도로스 신화집』(강대진 옮김)이 있다. 고대 그리스 신화와 영웅 전설들을 개략적으로 집대성한 이 신화집은 오랫동안 기원전 2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던 아테나이 출신의 대 학자 아폴로도로스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이 책은 아폴로도로스가 죽은 지 한두 세기 후에 점진적으로 편집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위작의 의미가 추가되어 위(僞)-아폴로도로스 『신화집』(Bibliothèque de Pseudo- d'Appolodore)이라 불린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brey,

리데스들이 지키는 황금사과 세 개를 가져오는 것이다. 헤라클레스가 아틀라스를 속여 황금사과 세 개를 구해 에우뤼스테우스에게 가져다주자 왕은 그것을 다시 헤라클레스에게 주었다. 이에 헤라클레스는 헤스페리데스의 사과를 아테나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아테나 여신은 즉시 그것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도로 가져다 놓았다. 황금사과를 제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두는 것은 불경한 짓이기 때문이다.

두 여신은 여기서 명백히 다른 가치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들은 또한 파리스의 심판 전설이 부여했던 가치들이기도 하다.⁸⁾ 헤라는 최고 여신으로, 그녀가 제일 먼저 신경 쓴 것은 알크메네의 아들을 왕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를 왕에게 복종하는 왕의 투사 역할로 격하시키는 것이었다. 반면 아테나는 즉시 미래의 영웅을 그녀의 보호 아래 두었으며, 헤라클레스가 버려진 신생아에 불과했을 때 그를 구하여서 장비를 갖추도록 배려해주었고, 또 헤라클레스가 난제를 수행할 때도 은밀히 지켜보았다.

물론 이 두 여신은 서로 싸우지 않았으며 함께 산책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합의는 순전히 외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왕자 목동 파리스의 심판 전설에서 두 여신이 아프로디테에게 가졌던 공통된 적개심이 결합시킨 동맹은 아니다. 이 두 여신들은 상반된 게임을 하였으며, 처녀 신 아테나는 거리낌 없이 헤라를 속여 겁 많은 알크메네가 들뜬에 버린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였다. 아기가 자신을 깨물기부터 하여 곧 아기를 박해하게 되지만, 헤라가 아기에게 젖을 먹여 생명을 구하는 장면은 기능적으로 먼저 인도 신화에서 시슈팔라(Sishupala)와 크리슈나(Krishna)의 모호한 관계를 상기시킨다.⁹⁾

Diller, *The Text History of the Bibliotheca of Pseudo-Apollodorus*, 296-313쪽을 참조하십시오.

8) 파리스의 심판 전설은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라는 글귀가 새겨진 황금 사과를 두고 세 여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던 내용으로, 트로이아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을 이야기하는 신화이다. 제우스는 세 여신 중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를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에게 판단하게 했다. 이 때 사과를 갖기 위해 헤라는 왕위를, 아테나는 지혜와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당시 그리스의 최고 미녀 헬레네를 갖게 해주겠노라고 파리스에게 약속했다. 사과는 아프로디테에게 돌아갔고, 얼마 후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납치해 트로이아로 데려가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이에 헬레네의 남편이었던 메넬라오스는 형 아가멤논의 지원을 받아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하여 헬레네를 되찾기 위해 트로이아로 원정을 떠났다. 이 전쟁에서 헤라와 아테나는 합심하여 그리스 연합군 측을 도왔고, 파리스의 선택을 받은 아프로디테는 당연히 트로이아 진영을 도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현자, 「뒤메질, 인도-유럽 신화와 3기능 이데올로기」, 『종교학연구』, 제19집(2000년, 11월), 50-81쪽 참조하십시오.

9) 2. 헤라, 아테나, 그리고 헤라클레스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Mythe et Épopée II*,

시슈팔라는 세 개의 눈과 네 개의 팔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의 부모가 아들을 버리려 하자 위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 버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경고 후에 그 목소리는 아기의 미래를 예언했다. 누군가가 나타나 아들을 무릎 위에 품어주면 그 여분의 눈과 팔이 없어질 것이나, 바로 그 사람이 아들의 목숨을 거두어 갈 것이라고. 어느 날 비슈누 신의 화신인 크리슈나가 친척 다마고샤(Damagosha)가 다스리는 체디(Chedi) 왕국을 방문했다. 왕비가 아들 시슈팔라를 조카인 크리슈나에게 보여주자, 크리슈나는 아기를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그러자 목소리의 예언대로 시슈팔라의 잉여의 눈과 팔이 사라졌다. 신비로운 목소리의 예언이 실현될까 두려워 왕비는 크리슈나에게 장차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부디 그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다. 이에 크리슈나는 시슈팔라가 죽어 마땅한 악행을 행하더라도 100번을 참아내리라 약속했다. 그 후 시슈팔라가 100번이나 자신을 모욕했으나 그때마다 크리슈나는 인내했다. 하지만 유디스티라의 라자수야(Rajasuya) 의식에서 자행했던 101번째의 모욕적 언행으로 인해 시슈팔라는 마침내 크리슈나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된다.¹⁰⁾

시슈팔라의 네 개의 팔과 세 개의 눈은 그가 휘몰아치는 폭풍처럼 막강한 파괴력을 가진 루드라(Rudra)-쉬바(Shiva) 신의 속성을 지닌 존재임을 의미한다. 힌두 세계관에 따르면 사악한 세력들이 법과 정의를 짓밟아 회복불가능한 정도로 세상이 혼탁해지면 종말이 가까워진다. 이때는 루드라-쉬바 신이 파괴적 힘을 발휘하여 세계를 몰락시키는 것이 다르마(dharma, 법, 정의)에 부합된다. 그러나 아직 종말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세계의 질서를 유지시키려는 비슈누(Vishnu) 신이 악한 세력들이 행사하는 무자비한 힘들을 제압함으로써 세상을 구하는 것이 다르마를 실행하는 것이다. 『마하바라타』에서 인드라푸라스타 왕국의 왕 유디스티라는 다르마의 화신이며, 비슈누 신의 화신인 크리슈나는 유디스티라 형제들을 보호해준다. 크리슈나는 시슈팔라의 오만한 악행을 100번이나 인내했으나, 참회할 줄 몰랐던 시슈팔라는 제왕이 된 유디스티라가 거행하는 라자수야 의례에서 또 다시 잘못을 저질러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도시나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빈번했던 시대에 공동체의 평온과 질서를 책임진 최고 통치자는 강한 힘을 가진 용맹한 무사들을 가능한 한 많이 자신의 휘하에

119-121쪽에서 II. Place d'Héraclès par rapport à la première et à la deuxième fonction, et notamment par rapport aux deux déesses qui y président(제1기능과 제2기능과 관련된, 특히 그 기능들을 주재하는 두 여신과 관련된 헤라클레스의 위치)라는 소제목 하의 내용들을 번역, 정리한 것이다.

10) 이 내용은 『마하바라타』에서 유디스티라가 라자수야 의식을 거행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마디 속에 포함되어 있다.

품어 들이려한다. 어떤 무사의 용기와 힘이 지배자의 능력을 능가하더라도, 제2기능의 존재 이유에 부합되게 사용되는 한 힘과 무기의 사용이 용인된다. 그러나 제2기능의 힘이 지나치게 남용되거나 불의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응징이 뒤따르며,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과오가 반복되면 그 힘을 행사한 자는 비록 탁월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 헤라클레스의 과오들에 대한 뒤메질의 기능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제2기능의 본질과 임무, 그리고 다른 두 기능들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Ⅲ. 헤라클레스의 과오들¹¹⁾

헤라클레스는 에우뤼스테우스 왕을 섬기라는 제우스의 명령에 불복한다. 이 오만함(hubris)에 대한 벌로 광기에 사로잡혀 자기의 일곱 자식을 다 죽이게 된다. 다음으로 에우뤼토스의 아들을 결투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불명예스럽게 책략으로 죽이고, 그 벌로 병에 걸린다. 또 데이아네이라와 결혼하고도 이올레에게 연정을 느낀다. 그 대가는 지상에서의 생의 마감이다. 결국 히드라의 독이 묻은 윗도리를 입고 그 독이 온 몸에 퍼져 극도의 고통을 겪게 되자, 신탁에 따라 헤라클레스는 스스로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죽는다. 그 후 그는 제우스에 의해 신들의 세계에 받아들여져 헤라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 불멸의 존재가 된다.

1. 첫 번째 과오(Diodore, IV, 10, 6 과 11, 1)

헤라클레스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에르기노스가 테베로부터 공물을 받아오라고 보낸 전령들을 만났다. 헤라클레스는 그 전령들의 귀와 코와 손을 잘라 노끈으로 그들의 목에 묶은 후에 에르기노스에게 돌려보냈다. 분개한 에르기노스가 미누아이족과 함께 테베로 진격했다. 헤라클레스는 아테나 여신으로부터 무구

11) Ⅲ. 헤라클레스의 과오들에 관한 내용은 주로 *Heure et Malheur du Guerrier*의 제2부, *Les Trois Péchés du Guerrier*(무사의 세 가지 죄)의 IV. *Les trois péchés de Sísupāla, de Starcatherus, d'Héraclès*(97-105)에서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뒤메질은 세 영웅, 인도의 시슈팔라, 스칸디나비아의 스타르카테루스, 그리스의 헤라클레스의 기능적 죄를 비교하는 데, 그 중 헤라클레스의 세 가지 죄에 관한 부분(99-105)을 정리한 것이다. 뒤메질의 분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관련 신화들을 요약하여 추가하기도 했다.

(武器)를 받아 전투를 지휘하여 에르퀴노스를 죽이고 미누아이족을 패퇴시킨 후, 테베가 당시 보이오티아 지방에서 가장 부강한 도시인 오르코메노스 시에 바치던 공물을 면제하도록 해준다. 그 보답으로 테베의 왕 크레온은 헤라클레스를 자신의 딸 메가라와 결혼시킨다.

하지만 점점 커져가는 헤라클레스의 명성은 아르고스의 왕 에우뤼스테우스를 불안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는 헤라클레스를 불러 12가지 난사(難事)를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헤라클레스가 이에 불복하자, 제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에우뤼스테우스의 의향에 복종하여 그 명령을 수행하러 떠날 것을 명하였다. 그럼에도 헤라클레스는 왕의 명령에 즉각 따르지 않고 델포이 신전으로 가서 신의(神意)를 물었다. 신탁은 에우뤼스테우스가 명하는 12가지 난사를 수행하는 것이 신들의 뜻이며, 그 임무를 수행하고 나면 그는 불멸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헤라클레스는 심히 낙담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자신이 에우뤼스테우스보다 뛰어난데도 자기보다 못한 인물의 노예가 되어 그를 섬겨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버지 제우스에게 불복하는 것은 위험스럽기 짝이 없을뿐더러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본 헤라는 그에게 광란의 분노를 불어넣었다. 이로 인해 헤라클레스는 격노의 광기가 발작하여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기 자식들을 활로 쏘아 모두 죽여 버렸다. 그가 제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자식들은 이미 죽어 있었으며, 그래서 그는 신의 뜻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에우뤼스테우스가 부과한 12가지 난사를 수행하러 떠난다. 12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며 12가지 난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헤라클레스는 갖가지 무훈들을 행한다.

헤라클레스의 첫 번째 죄는 제우스의 명령과 델포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에우뤼스테우스의 투사가 되기를 주저하였다는 바로 그것이다. 헤라클레스는 여러 모로 판단해볼 때 자신이 에우뤼스테우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헤라가가 한 첫 번째 응징 이후, 그는 굴복하여 왕의 명령을 받들어 12가지 난사(難事)를 수행하러 떠난다. 헤라클레스가 왕에게 에뤼반테스의 멧돼지를 가져다주는 장면을 그린 도기 그림들이 있다. 그가 살아있는 멧돼지를 어깨에 메고 왔을 때, 왕은 공포에 사로잡혀 술통 뒤로 숨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자신에게 부과된 12가지 일들을 수행하는 중이건 그 이후건 결코 왕을 손대지 않았으며, 왕위를 대신 할 작정도 하지 않았다. 그가 술한 잘못들을 바로잡고 왕들을 포함한 그 많은 악인들을 벌주었던 행정(行程) 동안에도 그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2. 두 번째 과오(Diodore, IV, 31, 1-4)

12가지 난사(難事)를 완수한 뒤,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아내 메가라를 이올라오스와 결혼시킨다. 그가 광기에 사로잡혀 자식들을 죽인 이후에 메가라가 자식을 낳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후손이 있어야 하므로 자식을 낳아줄 다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그는 신붓감을 물색했다. 헤라클레스는 오이칼리아를 다스리던 에우뤼토스의 딸 이올레에게 구혼하였다. 그러나 메가라의 불행을 보고 신중해진 에우뤼토스는 헤라클레스의 뜻을 고려해보겠다고 대답하였다. 실망한 헤라클레스는 이 모욕에 복수하기 위해 에우뤼토스의 암말들을 없애버렸다. 에우뤼토스의 아들 이피토스는 헤라클레스가 암말들을 훔쳐 갔으리라 의심하고는 그 동물들을 찾기 위해 튀린스로 왔다. 헤라클레스는 그를 높은 탑 위에 올라가게 하고는 암말들이 어딘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고 말하였다. 이피토스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헤라클레스는 그가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하였다고 하면서 이피토스를 탑 꼭대기에서 아래로 밀어뜨려 죽게 하였다. 이 죽음으로 인해 헤라클레스는 병에 걸린다.

헤라클레스는 병을 치유하기 위해 벨레우스에게 자신을 정화해주기를 부탁했으나 벨레우스가 헤라클레스를 정화하기를 거부했다. 영웅은 데이포보스에게 정화 의식을 거행시켰다. 하지만 그의 병은 낫지 않았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다시 아폴론의 신탁을 구하였다. 신탁이 이르기를, 헤라클레스가 자신을 노예로 팔아 그 돈을 이피토스의 자식들에게 주고 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헤라클레스는 움팔레에게 팔려 루디아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그 기간 동안 또 새로운 무훈들이 전개된다.

이 에피소드에서 디오도로스가 전하는 이야기는 헤라클레스의 잘못을 완화시킨다. 헤라클레스가 탑 위에서 이피토스를 밀어 떨어뜨리기 전에 그는 자신이 왜 이피토스를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한다. 그러나 『트라키스 여인들』(269-280)에서는 라이카스가 가혹한 신의 응징을 보다 정당화한다.

“어느 날 이피토스가 튀린스 언덕으로 와서 길 잃은 암말들의 발자취를 찾고 있었다. 그가 다른 데에 정신을 쏟는 순간 이피토스의 모욕에 앙심을 품고 있던 헤라클레스는 그를 가파른 산 위에서 밀어뜨렸다.

모든 존재의 아버지이자 신들의 왕인 올림포스의 제우스는 헤라클레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화가 나서 그를 추방하여 팔아버렸다. 제우스는 헤라클레스가 수많은 사람

들을 죽였으나 이피토스만 책략으로 죽였기 때문에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만일 헤라클레스가 공공연히 복수를 하였다면 그는 이 폭력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여 용서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신들 자신들도 모욕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스의 잘못은 결투 대신 책략으로 복수를 함으로써 강자의 의무와 명예를 저버린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이방인의 환대는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불문율이었다. 그는 튀린스에서 자신이 헤라클레스로부터 환대를 받았기에 안전하다고 믿은 이피토스를 갑작스럽게 죽였다. 그 대가는 먼저 육체적 병, 즉 제2기능의 영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신체적 강건함의 손상이다. 그러나 제2기능의 불명예에 대한 응징은 단지 육체의 병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치유를 위한 정화의식을 치른 후, 그는 타국에서 12년간의 노예 생활(육체의 구속)을 한 후에야 다시 영웅으로 귀향한다.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또 다른 형태의 죄를 짓고, 그 별로 그렇게 않아도 유한한 인간의 삶을 단축시키고 만다.

3. 세 번째 과오와 죽음(Diodore, IV. 37, 4 - 38, 2)

헤라클레스는 메가라와 갈라선 이후 계속 거부했던 데이아네이라가 마침내 그가 찾던 아내로 적합함을 깨닫고 그녀와 결혼하였다. 그러나 이 결혼은 결국 헤라클레스의 생명을 앗아가게 만든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는 오이네우스와 잔치를 벌이다 자기 손에 물을 부어주던 한 소년을 주먹으로 쳐서 죽였다. 오이네우스의 친척이었던 그 소년의 아버지는 그것이 본의 아닌 사고였음을 알고 헤라클레스를 용서해주었다. 그러나 비록 오해로 인한 살인이라 할지라도 강자가 약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는 쉽게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법. 헤라클레스는 스스로 법에 따라 추방형을 감수하기로 마음먹고 아내와 함께 트라키스를 향해 떠났다. 도중에 물살이 센 에우에노스 강에 이르렀는데, 겨울비로 강물이 불어 수심이 깊은데다 물살이 소용돌이쳐 아내를 데리고 헤엄쳐 건너기가 어려웠다. 이때 반인반마의 켄타우로스 네소스가 다가와 헤라클레스가 먼저 강을 헤엄쳐 건너가면 자신이 데이아네이라를 강 저편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음심을 품은 네소스는 도중에 그녀를 겁탈하려했다. 아내의 비명 소리를 듣고 상황을 파악한 헤라클레스는 네소스가 강물 밖으로 나올 때 화살로 그의 심장을 쏘았다. 히드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그 화살에는 뱀의 독이 남아 있었다. 헤라클레스가 쏜 히드라의 독이 묻은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켄타우로스 네소스는 독이 스며든 자신의 피를 데이아네이라에게 주면서 말했다. 만일 언젠가 그녀에 대한 헤라클레스의 사랑이 식으면 그 피를 약간만 헤라클레스의 옷에 묻히면 남편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고.

얼마 후 영웅은 자신이 결혼하였다는 것을 잊고 또 다른 여인에게 빠져든다. 그는 아이톤을 떠나 펠라기오스 지역에 들러 그곳에서 오르메노스 왕을 만난다. 헤라클레스는 오르메노스에게 왕녀 아스튀다미아와 결혼하게 해줄 것을 청한다. 그러나 아스튀다미아는 헤라클레스가 이미 법적으로 데이아네이라와 결혼하였으므로 그의 청을 거절한다. 그러자 헤라클레스는 오르메노스를 공격하여 그의 도시를 차지하고 왕을 죽인 뒤 아스튀다미아를 납치해 간다. 이 원정 후 헤라클레스는 이올레와의 결혼을 거절했던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오이칼리아 정벌에 나선다. 그는 아르카디아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시를 차지하여 에우뤼토스의 세 아들을 죽인 뒤 이올레를 납치하여 에우베오이의 케네오스 곁으로 데리고 간다.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헤라클레스는 라이카스를 아내 데이아네이라가 있는 트라키스로 보내어 제사 시에 입을 예복을 가져오게 한다. 라이카스로부터 남편 헤라클레스가 이올레에게 열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이아네이라는 그의 총애를 되찾기 위해 예복에다 켄타우로스의 피를 묻혀 보낸다. 헤라클레스가 라이카스로부터 건네받은 예복을 입자 치명적인 독의 효력이 점차 작용하여 그는 끔찍한 불행에 빠진다. 몸의 열기가 작용하자 히드라의 독이 헤라클레스의 몸에 침투해 그는 고통으로 몸을 뒤튼다.

남편 헤라클레스가 왜 예복을 가져오게 했는지를 안 데이아네이라는 반인반마의 네소스가 죽어가면서 했던 말을 기억했다. 만일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의 피가 묻은 옷을 남편에게 입히기만 하면 그녀에 대한 남편의 애정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화살촉에 붙어있던 히드라의 독이 네소스의 피 속에 남아 있다는 것을 몰랐다. 데이아네이라는 헤라클레스가 부탁했던 예복에 네소스의 피를 묻히려, 사랑의 묘약이 스며있다고 믿은 예복을 하인에게 주어 보내었다. 헤라클레스가 그 예복을 입자 신체의 열이 자극한 독이 그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헤라클레스는 세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포이의 신탁을 구하러 보낸다. 이에 아폴론은 오이테 산에 나무더미를 높이 쌓아 헤라클레스를 그의 모든 무기와 함께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나머지는 제우스에게 맡기라고 한다.

헤라클레스가 데이아네이라와 결혼하고도 이올레에게 가졌던 연정을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가족들을 죽이고서 기어이 그녀를 차지한 대가는 지상에서의 생의 마감이다. 히드라의 독이 묻은 윗도리를 입고 독이 온 몸에 퍼져 극도의 고통을 겪게 되자, 결국 그는 스스로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죽는다. 그 후 제우스에 의해 신들의 세계에 받아들여진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

불멸의 존재가 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헤라클레스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각 부분은 속죄를 요하는 심각한 과오로 시작된다. 그 이후 이어지는 일련의 모험들은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 과오들의 여파가 처음에는 영웅의 정신 건강에 미치고, 두 번째는 육체적 건강에,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 자체에 미친다. 결국 이 죄들은 제우스의 명령 앞에서의 망설임, 적을 갑작스레 죽인 비열한 살해, 그리고 불륜의 연정으로 연속해서 이어지므로 I, II, III의 순서대로 세 기능과 관련된 과오에 해당된다.¹²⁾ 이 기능적 죄에 대한 대가는 각 기능의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능력의 손상이며, 손상된 힘들은 그에 합당한 죄 값을 치른 후에 다시 회복된다.¹³⁾

뒤메질은 헤라클레스의 일생에 관한 전설들에서 “영웅의 세 가지 죄”뿐 아니라 또 다른 3기능의 테마들을 포착한다. “신화나 전설 또는 약간 발전된 서사시의 이야기가 그 틀 속에, 혹은 커다란 이야기의 연결마디 중의 한 마디 속에 3기능 구조가 적용되었음을 명확히 드러낼 때, 우리는 거기에서 다른 3기능 테마들도 적용되었을 감지할 수 있다. 때로는 3기능 구조 도식의 축약판이 3기능 구조라는 중심 틀 내부에, 3기능 구조의 하위 구분들 중의 하나 속에 삽입된다. 종종 3기능 틀이 서로 맞물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병치되거나 중복된다. 그래서 트로이아의 멸망이 파리스가 세 기능 여신들 간의 중재를 신중치 못하게 한 것 때문으로 설명되지만, 그 이유는 또한 멀리는 라오메돈 왕의 세 가지 불경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었으며, 또 라오메돈 이전에 도시의 건설 자체가 기능적인 일련의 신성한 징표들을 야기했다.”¹⁴⁾ 따라서 헤라클레스의 생애에서 여러 3기능 테마들이 발견되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뒤메질은 헤라클레스의 과오를 유발한 세 종류의 불의 양태와 그가 증여한 유산에 주목하여 이를 확인한다.

IV. 불의 세 가지 현현 양태와 헤라클레스의 죽음

12) 여인들의 납치나 불륜은 생산력, 혹은 생명의 침해나 왜곡이므로, 뒤메질은 이를 제3기능의 영역에 대한 침해나 왜곡으로 설명한다.

13) 헤라클레스의 전설에서만 “영웅의 세 가지 죄”라는 테마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Heure et Malheur du Guerrier* (무사의 길흉화복)에서 뒤메질은 인도-유럽제족의 여러 신화와 영웅의 전설들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강한 인간에 관한 무수한 전설들을 만들어 내는데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틀은 “영웅의 세 가지 죄”로, 이는 인도-유럽 어족의 세 기능 중의 한 기능 원리에 대해 범해졌던 것이다.

14) *L'oublié de l'homme et l'honneur des dieux* (인간의 망각과 신들의 명예), 71.

프로메테우스가 속이 빈 회향목 속에 숨겨 제우스 몰래 인간에게 가져다준 불은 축복이자 동시에 재앙이다. 헤라클레스가 아버지 제우스에게서 물려받은 초인적 힘 또한 마찬가지다. 그의 막강한 힘과 무기는 신의 은총과 저주가 맞붙어 내재되어 있는 양날의 칼이다. 하여 괴력을 가진 영웅의 삶에는 늘 불이 함께 한다.¹⁵⁾

1. 세 종류의 불¹⁶⁾

1) 보이지 않는 불

히드라의 독 속에 숨어 잠자고 있는 불로, 이 불은 인체의 열이 되살아나게 하거나 불꽃이 가까이 갔을 때 되살아난다. 욕망의 불, 정념의 불인 내면의 잠재적 불은 외부의 대상과 접촉했을 때 불이 붙듯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불은 성냥의 유황처럼 실제의 불과 접촉했을 때만 드러난다.

소포클레스는 『트라키스 여인들』에서 히드라의 독이 헤라클레스의 몸에 퍼졌을 때의 살을 찢는 듯한 통증, 근육의 경련, 폐가 일그러지고 피가 마르는 고통들을 묘사한다. 이 모든 고통들은 내면의 가열과 연소이다. 이 고통들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시작되자 헤라클레스는 “불행의 경련들이 나를 태워 내 옆구리를 뚫고 들어왔도다.”라고 외쳤다. 걱정이 된 테이아네이라는 집으로 돌아와서 우연히 그녀가 켄타우로스의 피를 묻혀 긴 윗도리에 문질렀던 양털몽치를 내리찍는 햇빛 아래 던졌다. 그랬더니 태양의 열기가 닿자마자 그 양털몽치는 녹아서 완전히 없어지고 한줌의 재만 남겨 놓았다. 실질적인 불의 효력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불꽃 없는 내면의 불을 끄게끔 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경험하는 불, 헤라클레스를 태운 장작불이다.

2) 일상에서 사용하고 경험하는 불

고통을 견디다 못한 헤라클레스는 아들 헬로스를 불러 자신을 제우스의 산인 오이타 정상으로 옮겨달라고 한다. 그 산에서 깊이 뿌리박은 참나무를 베고, 야생

15) 축복, 은총을 뜻하는 grace는 헬라어 카리테스(Charites, Charis의 복수)의 라틴어 표기인 gratiae에서 유래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들은 카리스(Charis)를 불의 장인 헤파이스토스의 아내로 묘사한다(호메로스, 『일리아스』, 제18권 382-383).

16) 1. 세 종류의 불과 2. 헤라클레스의 죽음과 유언의 내용들은 주로 *L'oublié de l'homme et l'honneur des dieux* (인간의 망각과 신들의 명예), 71-79쪽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Trifunctionalia*(51-60) 중 56. *Mort et Testament d'Héraclès*(71-79)의 내용들이다.

의 숫 올리버나무를 잘라서 거기에 자신의 몸을 던진 뒤 소나무 켓볼로 불을 붙여 태우라고 말한다. 아폴로도로스와 또 다른 본(本)에 의하면, 헤라클레스는 델포이 신의 명령에 따라 오이타 산에서 자신을 불태우기로 마음먹었다고 이야기한다. 디오도로스는 여기에다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활과 화살을 필록테테스에게 주었다고 덧붙인다. 잠재해 있던 불이 삼킨 것은 감각의 인간이며, 술한 적들과 괴물들을 퇴치한 정복자를 독의 불의 고통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은 나뭇단의 불이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를 구원해주는 것은 두 번째 불이 아니라 오이타산 정상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온 초자연적인 신성한 불, 즉 제우스의 벼락이다.

3) 제우스의 번개불

헤라클레스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자 필록테테스는 나무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이 불이 헤라클레스의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시키지는 않는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치자 나무더미들이 재로 변했다. 사람들이 헤라클레스의 뼈를 찾아내기 위해 그 재 속을 뒤졌으나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번개가 헤라클레스를 신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다 놓았다.

헤라클레스의 이 마지막 생에서 드러나는 주된 관념은 불의 강력한 힘의 폭이다. 불은 화(禍)가 되기도 하고 복(福)이 되기도 하고, 징벌하기도 하고 정화하기도 하며, 또 죽음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불멸하게도 한다. 헤라클레스의 무훈의 책임들이 그 삶 자체가 또한 행과 불행, 오욕과 영광 사이를 넘나들었던 한 생의 마지막에 불의 이러한 풍부함을 펼쳤다.

효력이 드러났을 때만 간파되는 잠재적인 유해한 불; 파멸의 수단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정화의 수단이기도 한, 인간에 의해 통제되는 일상적인 불; 번개 속에서 현시되는 신성한 불. 이 세 종류의 불은 또 제3의 분류와 관련을 맺으면서 전개된다.

두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불은 III, II, I의 순서로 세 기능과 관련을 갖는다. 영웅의 생애로 보았을 때, 독의 불은 감각적인 인간, 즉 불륜자를 응징하고, 일상의 불은 영웅이 무장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며, 번개는 유한한 생명의 인간이 불멸의 신으로 신분 상승하여 신격화되는 수단이다.

점화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독의 불을 지피는 자는 가까이서 질투하는 아내이며, 멀리는 발정난 켄타우로스이다. 장작불을 붙이는 필록테테스는 그리스의 젊은 무사의 유형 그 자체이다. 마지막 불의 점화자는 우주의 지배자 제우스로, 그의 무기인 번개는 땅의 인간을 천상으로 데려가 신으로 만드는 신성한 불이다.

이 분류는 또 다시 우주의 영역이라는 세 번째 개념과 연결된다. 지하세계에서

은 불인 히드라의 독, 하늘에 가까운 오이타 산의 나무가 일으키므로 비록 하늘에 가깝기는 하나 인간세계에 속해 있는 불, 하늘의 주인이 보낸 천상계로부터 온 벼락이다.

독의 불은 그 나뭇대로 지하계에서 왔다. 죽음의 수단인 그 불은 죽은 켈타우로스 네소스가 제공했다. 『트라키스 여인들』의 마지막(1157-1167)에 헤라클레스가 아들 휠로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잘 들어라. 이제야 말로 내가 내 아들로 불릴 만한지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옛날에 내 아버지에게 내렸던 한 신탁이 나는 살아 있는 인간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데스의 거주자인 죽은 자의 손에 의해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 신탁은 이루어졌다. 바로 죽은 켈타우로스가 나를 죽이니.”

죽은 후 지하계 하데스에 속해 있는 켈타우로스에게 의해 지퍼진 독-불은 우주의 세 단계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위치해 있는 불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무훈 장면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헤라클레스의 세 가지 유산 증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제일 마지막 때의 것은 합의에 의한 신뢰가 삶을 포기하도록 하지는 않았지만, 자포자기한 헤라클레스는 아버지 제우스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겠노라고 말했다.

위대한 모험가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려는 그 순간 몇 가지 일들이 영웅의 마음에 걸렸다. 그는 왕국을 갖지 못했으며, 아내로 하여금 독살의 제앙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그녀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였다. 또 자식들의 장래, 특히 휠로스의 장래와 그를 수행했던 사람들의 장래를 배려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봉사를 요구했고, 충고를 해주거나 부를 주지도 않으면서 임무만을 주었다. 이제 남은 재산이라고는 셋 밖에 없었다. 그것은 제우스와 혈연이면서 불멸을 약속받은 그 자신과, 델포이의 신탁이 자신의 육체와 함께 나뭇단 위에 놓으라고 했던 자신의 무기들, 그리고 그가 열정적으로 사랑했으나 자신의 잘못으로 고아가 되어 이제 자신이 죽고 나면 가차 없이 불행에 내맡겨질 젊은 여인 이올레이다. 헤라클레스는 이들의 운명을 해결해 주었다.

2. 헤라클레스의 죽음과 유언

헤라클레스의 유산 목록은 소포클레스의 저작 속에서만 세 가지로 온전히 나타난다. 그것들도 『트라키스 여인들』에 없는 것을 『필록테테스』가 보충해 주어

야 하기는 하지만, 아폴로도로스의 작품 속에서는 그 중 두 개의 항인 III과 I만, 그리고 디오도로스는 III항과 II항만 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것들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전체의 유기적 연관을 보여준다.

1) 헤라클레스의 유산 증여

아폴로도로스는 필록테테스를 그의 아버지 포이아스로 대체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¹⁷⁾

- “1.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테이아네이라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들 중 장남인 헬로스에게 그가 성인이 되면 이올레와 결혼하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2. 트라키스인들의 영토에 있는 오이타 산으로 가서 나뭇단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간 뒤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라고 하였다. 아무도 그 일을 하려하지 않았으나, 가축들을 찾아 다니다 그곳을 지나던 포이아스가 나뭇단에 불을 붙였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활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
3. 나무에 불이 붙어 타기 시작하자, 천둥벼락이 치는 가운데 구름이 헤라클레스 위에 내려와 그를 하늘로 데려갔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늘에서 그는 불뿔을 얻고 헤라와 화해하여 그녀의 딸 헤베와 결혼하였다.”

이 세 경우를 검토해보자. 먼저 헤라클레스는 자기 아들에게 모든 불행 - 비록 테이아네이라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헤라클레스의 고통과 그녀의 자살 - 의 계체가 되었던 헤라클레스 자신의 첩 이올레와 결혼하라는 기묘한 임무에서 가장 풍부한 효과들을 끌어낸 이는 소포클레스이다. 프레이저가 아폴로도로스의 짧은 문장(총서, Loeb. II, p.269, n.45)에 덧붙인 나이브한 주를 읽지 말고 『트라키스 여인들』(1211-1246)의 멋진 장면을 다시 읽어보라.

또 헤라클레스는 필록테테스에게 자신의 활과 화살을 양도했다. 트로이 멸망에 없어서는 안 되었던 이 치명적 화살들과 이 불행한 소년의 차후의 운명은 소포클레스에게 그의 비극들 중 가장 인간적인 비극의 소재를 제공했다. 무기의 증여는 모든 것의 시초이다. 『필록테테스』, 798-801을 다시 읽어보라.

자신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고통의 위기에 사로잡혀 영웅은 정의의 의무와 배신의 임무 사이에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네오프톨레모스에게 헤파이스토스의 화덕에 그를 던지라고 하였다.

17) 위-아폴로도로스(Pseudo-Apollodorus) 『신화집(Bibliotheca)』에 의하면, 헤라클레스를 불태울 장작불에 불을 지핀 이는 필록테테스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포이아스이다.

“내 아들이여, 고귀한 아들이여! 자, 그대는 나를 붙잡아 저기 저 램노스의 불 속에 살라버리시오. 예전에 내가 제우스의 아들에게 그대가 지금 간수하고 있는 그 무기들을 받는 대가로 그를 불사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यो.”

마지막으로 아폴로도로스는 헤라클레스에게 구름-운송수단과 그것을 호위하는 천둥을 부여했는데, 이는 디오도로스가 묘사한 장관을 완화한 것이다. 디오도로스에 의하면, 나뭇단이 타자마자 하늘의 불길인 번개가 내리 덮쳤다. 이 번개는 영웅 자체를 변화시켰다. 제우스의 인간 아들이신들 중의 하나로.

2) 헤라클레스의 최후, 헤라클레스와 화해한 헤라(Diodore, IV, 38, 3-5; 39, 2-3)

불륜 후 헤라클레스는 네소스의 피가 스며든 윗도리의 함정에 빠졌다. 헤라클레스가 예복을 입자 신체의 열이 자극한 독이 그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점점 심해지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영웅은 자신의 동료 둘을 보내어 세 번째로 델포이의 신탁을 구했다. 그러자 아폴론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헤라클레스를 무장시켜 오이타산으로 운반하여 거대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아라. 그 나머지는 제우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4. 이올라오스와 그 동료들은 신탁의 명령대로 준비를 하고는, 장차 일어날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 나뭇단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물러나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한 참여자에게 나뭇단에 불을 붙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감히 불을 붙이기를 꺼려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으나 그들도 마찬가지로 부탁하자, 젊은이는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곧 바로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쳐 장작불은 즉시 불타 소진되었다.

5. 이올라오스와 그 동료들은 뼈를 찾아 수습하려 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신탁의 말대로 헤라클레스는 인간 세계에서 신들의 세계로 갔다고 결론지었다.”

헤라클레스 승배가 애초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한 몇몇 증거들을 기록한 뒤(IV, 39, 1), 디오도로스는 우리를 올림포스의 비밀로 데리고 간다.

“2. 우리는 우리 이야기에 다음을 첨가하지 않을 수 없다. 헤라클레스가 신이 된 후, 제우스는 헤라를 설득하여 헤라클레스를 양자로 삼아 차후로 그리고 늘 헤라클레스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갖는 좋은 감정을 보여달라고 했다. 양자 결연은 분만하는 것처럼 행해졌다. 헤라는 침대에 올라가 헤라클레스를 앞으로 품어 실제로 아기를 낳는 것처럼 자신의 옷 사이로 그를 땅에 떨어뜨렸다.

3. 입양 후 헤라는 자신의 딸 헤베를 헤라클레스에게 주어 결혼시켰다고 신화 제조자들은 말한다.”

사모사타 출신의 루키아노스는 제우스의 이야기는 빠뜨리고 장작불에 의한 구원을 말하면서, 이 구원의 본질은 잘 설명한다.

“영웅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불로 정화되어 온갖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그에게는 신적인 요소들 밖에는 남아 있지 않았을 때, 그는 신들을 향해 날아 올라갔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불과 유사한 철학이 인간의 그릇된 판단들이 찬미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을 때, 사람들은 꼭대기를 향해 비상하여 참된 복에 도달한다. 그들은 그곳에 부와 영광과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거기(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들을 조롱하면서.”¹⁸⁾

사실 본래 유한한 생명의 인간을 불태움과 동시에 불멸의 신을 끌어낸 것은 디오도로스가 말하듯이 단지 하늘의 불이었느냐, 아니면 두 종류의 불이 그 임무를 분담했던 것이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헤라클레스의 태도이다. 그는 이올레나 무기의 경우처럼 물질적 선물을 한 것이 아니다. 신탁의 불가해한 약속을 믿으면서 그 스스로를 자신의 아버지 제우스에게 맡겼다. 제우스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신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헤라의 끔찍한 질투를 종식시켰으므로, 결국 헤라클레스와 제우스는 둘 다 헤라클레스의 이러한 행위의 수혜자가 되었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헬로스에게 선물하고, 자신의 무기를 필록테테스(또는 포이아스)에게 선물한 뒤, 헤라클레스 자신은 자기 내부에 지니고 있던 불멸의 본질을 순순히 제우스에게 또 신들에게 맡겼다. 헤라클레스는 수 천 년 전부터 예술가, 도덕주의자, 신화학자들을 매료했던 온갖 죽음의 정황들을 3기능의 틀 속에 정리하였다.

V. 나가는 말

18) 뒤메질은 수사학자이자 풍자 시인인 루키아노스(Lucien de Samosate)를 인용하지만, 참조 판본을 명기하지 않았다. 기원전 146년 코린토스 전투에서 로마가 승리한 후 그리스의 도시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게 된다. 루키아노스는 기원전 120년에 시리아 사모사타에서 출생하여 기원전 180년 이후 아테네, 혹은 이집트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가 활동하던 때는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하던 시기였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3기능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계급제도이다. 사제계급인 브라흐만, 무사계급인 크샤트리아, 목축·경작인 바이샤와 공인(工人)집단인 수드라는 각각 제1기능, 제2기능, 그리고 마지막 두 생산자 계급은 제3기능을 담당한다. 고대 인도인들은 이들 각 계급에 고유한 다르마(dharma, 법, 규율 정의)를 규정하고 이들 사이에 위계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확립했다. 그리고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를 통해 대중들에게 각 계급의 다르마를 각인시키며 전파시켰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다양한 유형의 영웅 신화들 속에 여러 사회적 기능과 각 기능의 고유한 덕목과 한계, 그리고 기능들 사이의 관계와 작동 원리의 구체적 예들을 삼입했다. 앞에서 살펴본 뒤메질의 헤라클레스 신화 연구는 이 중 제2기능의 인물과 관련된 것이다.

존 F. 케네디는 로버트 프로스트를 추모하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사 권력에 대한 도덕적 억제력을, 부가 지혜를, 그리고 권력이 국가의 목적의식을 동반하는 미래를 나는 기대합니다. 비단 힘뿐만이 아니라 그 문명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미국을 기대합니다.” 도덕적 억제력이 결여된 군사력, 국가의 목적의식에 반하는 정부, 불의하게 축적되거나 지혜롭지 못하게 순환되지 못하는 부. 뒤메질의 기능 이데올로기로 표현하면, 이것들은 오용되거나 남용된 세 기능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의 연설을 마음에 새겨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일까?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폭파되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전 세계인들이 tv로 목도했다. 이 테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알카에다의 애초 목표물에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외에 미국방부의 펜타곤과 백악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일 알카에다의 계획이 모두 성공했다면, 9.11 테러 사건은 미국의 몰락을 보여주려고 했던 상징적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들 건물은 각기 한 국가의 지속과 안녕에 필수불가결한 부와 군사력, 그리고 통치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적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조앤 롤링은 『해리 포터』에서 각 기능에 고유한 특성을 거론한다. 마법학교에 입성한 학생들은 마법의 분류 모자를 쓰고 자신의 자질에 따라 반을 배정받는다. 용기와 대담성 그리고 기사도 정신을 갖춘 용감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핀도르, 현명하고 사려 깊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레이번클로, 의롭고 성실하고 진실하며 인내로써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후플푸프,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재간꾼들이 모이는 슬리데린. 이들은 각기 순서대로 제2기능, 제1기능, 그리고 마지막 두 반은 각자 농부와 상인의 특성을 상기시키므로 제3기능을 담당하는 집단이다. 이는 21세기 대중문화의 분석에서 뒤메질의 3기능 이데올로기라는 분석틀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복잡하게 분화된 사회를 3기능 이데올로기라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분석틀로 통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이처럼 기능적 고찰은 상이한 문화 현상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시공의 간극을 없애준다. 이것이 상이함을 배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차이점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제2기능의 경우, 고대에는 물리적 힘이 중요시되었다면 현대에는 고성능 무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제2기능의 오용은 종종 방산비리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 고대 신화에서 여성이 제3기능의 구현자로 표상되곤 했다면, 오늘날에는 현대 신화라 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대개 금융계와 대기업, 고층 빌딩 같은 것이 제3기능의 표상물로 등장하곤 한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언설은 전근대 사회의 제1기능, 제2기능, 제3기능으로 하강하는 위계적 지배 질서가 아닌 제3기능의 비대화화 제1기능의 약화라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말해준다. 물리적 노동력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디지털 시대인 21세기는 지적 창조력이 더 중요하고 크게 생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경제 영역에서 모험심과 용기, 그리고 창의력이 필요하다.

고대 신화에 대한 이해는 단지 고대 문명과 정신에 대한 이해로만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의 문화 창조자들에게 신화가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면, 위대한 신화학자들의 연구 결과물은 시공을 넘어서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뒤메질의 언어 능력은 극소수 언어학의 대가들을 제외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30 여개의 인도-유럽어를 습득한 그는 일차 자료를 직접 읽으면서 방대한 양의 인도-유럽 신화들을 분석하였다. 그래서 그의 저서들은 연구 대상이 되는 다양한 신화의 내용과 그 신화를 향유했던 민족의 언어를 모르면 읽기가 쉽지 않다. 디디에 에리봉과의 대담 외에 60여권이나 되는 뒤메질의 저서들 중 단 한 권도 국역되지 못했던 것은 이런 장애들 때문이다. 또 뒤메질의 작업들에 대한 비판이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추론이나 설명의 타당성을 논하기보다는 주로 그의 신화 분석틀인 3기능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3기능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론적 비판들은 다른 기회에 검토하겠다. 이 글의 주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모두 필자가 붙인 주이다. 뒤메질의 분석 과정에 대한 비판적 점검이 있어야 하나, 이는 중국 신화 전문가인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작업이다.

국내의 신화 연구자들, 인도-유럽 신화에 관심을 가진 특정 지역학자들이나 문학자들은 대개 그에 관한 연구 논문들인 이차 자료들에 의존해 뒤메질의 연구 성

과들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칫 뒤메질에 대한 극히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이해나 왜곡된 이해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는 뒤메질의 작업 전반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단계, 즉 뒤메질의 연구 성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증대되는 신화에 대한 대중적·학문적 관심, 신화학에서 인도-유럽 신화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인도-유럽 신화 및 문명의 이해에서 뒤메질의 신화 연구의 중요성과 그 공헌 등을 고려할 때, 필자는 이제 국내에서도 뒤메질의 작업 과정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헤라클레스 신화에 대한 원전을 직접 읽을 능력도 없는 필자가 이런 글을 작성한 만용을 부린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주제어: 알크메네, 암피트리온, 아테나, 카리테스, 테이아네이라, 에우뤼스테우스, 기능적 죄, 헤라, 헤라클레스, 히브리스, 히드라, 이올레, 이피토스, 메가라, 네메시스, 네소스, 움팔레, 3기능 이데올로기, 제우스

원고접수일: 2015년 5월 6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9일

계재확정일: 2015년 6월 15일

참고문헌

- Diller, Aubrey. *The Text History of the Bibliotheca of Pseudo-Apollodoru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35.
- Apollodorus. *Bibliotheca*; 아폴로도로스. 『원전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천병희 옮김. 도서출판 숲, 2004.
- Diodore de Sicile. *Bibliothèque historique*. <http://fr.wikiesource.org/wiki/Auteur>.
- Durkheim, Émile. *Les formes élémentaires de la vie religieuse. Les système totémiques en Australie*. Paris, Le Livre de Poche, 1991.
- Dumézil, Georges. *L'oubli de l'homme et l'honneur des dieux et autres essais: vingt-cinq esquisses de mythologie*. Paris, Gallimard , 1985.
- . *Heur et malheur du guerrier: aspects mythiques de la fonction guerrière chez les Indo-Européens*. Paris, Flammarion, 1985.
- . (présented.), *Le Mahabharata et le Bhagavat du Colonel de Polier*. Paris, Gallimard, 1986.
- . *Mythe et épopée II*. Paris, Gallimard, 1971.
- Homer. Iliad; 호메로스. 『일리아스』. 천병희 역. 단국대학교출판부, 1996.
- Eliade, Mircea. *A History of religious ideas vol. I; From the Stone Age to the Eleusinian Mysteri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 Pseudo-Apollodore. *Bibliothèque*. <http://fr.wikiesource.org/wiki/Auteur>.
- Burket, Walter. *Homo Necans : rites sacrificiels et mythes de la Grèce ancienne*. traduit de l'allemand par Hélène Feydy avec la collaboration de Karola Machastchek pour les notes, Paris, Belles Lettres, 2005.

Abstract

Honors and Disgraces of a martial Hero

: from Dumézil's Analysis on some myths of Heracles

Kim, Hyun-ja(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attempt to reflect on the *raison d'être* of the martial hero in ancient Greek mythology by examining Georges Dumézil's analysis of some myths on Heracles. His analytic framework in the study of Indo-European mythologies is the trifunctional ideology, which implies that magical and juridical sovereignty/physical strength/wealth are three functions, whose harmonious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assures the peace and security of a given society. Heracles is a man of strong physical power inherited from Zeus. According to Greek mythology, he was born human and reborn as a divine being after death. So eventually the ancient Greeks came to venerate him as a god.

But the life of Heracles was filled with hardships and shame unbecoming for one of the greatest among Greek heroes, but also full of glory. Dumézil's analysis, presented in his works *Mythe et Epopée II ; Heure et Malheur du Guerrier ; L'oublié de l'homme et l'honneur des dieux*, helps us to comprehend the reasons behind this. The task of a martial hero was not only to defend his country against exterior menaces but also to preserve the inner order of society by accomplishing what is commanded by those who assume the first function. But it happened that the type of hero of enormous physical power had threatened sovereignty and/or had forced women into his family. Considering the woman was a symbol of fecundity and fertility, the abduction of a woman by a warrior in myths can be interpreted as the invasion of the second function on the realm of the third function.

According to Dumézil, the delicate tension between Hera and Athena

in the birth myth of Heracles represents the tension between the two functions of sovereignty and physical power in a society. The behaviors of the two goddesses towards Heracles, in consequence, appear in a different way. While Hera, wife of the supreme god Zeus, tried to keep the hero away from kingship before and after his birth in spite of Zeus' intention, Athena, goddess of war and wisdom, in secret protected the baby from Hera's exposed hostility. Moreover, the whole life of Heracles can also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related to three functional sins and punishments. 1. As he hesitated to carry out the order of Eurystheus, king of Argos, Hera, being enraged by this disloyalty, infused madness into him. Heracles in his frenzy killed all his children by shooting arrows. 2. He had fallen sick by killing Iphitus without notice, a behavior of bringing dishonor on the warrior, so as to be sold to Omphale of Lydia, where he spent 12 years as a slave. 3. After abducting Iole, Heracles sent a servant to his wife Deianira to bring him a ceremonial dress for his marriage with Iole. As soon as putting on the dress which Deianira had soaked in, without intention, the poison of the Hydra, he fell in agony. After all, receiving the oracle of Zeus, he ended his life by burning himself on the log fire.

Key Words: Alcmene, Amphitryon, Athena, Charites, Deianira, Dumézil, Eurystheus, functional sin, Hera, Heracles, Hubris, Hydra, Iole, Iphitus, Megara, Nemesis, Nessus, Omphale of Lydia, trifunctional ideology, Zeus